

목포, 이충무공 탄신 제480주년 기념행사
고하도 모충각서 200여 명 참석… 호국정신 되새겨



목포시는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아 ‘이충무공 탄신 제480주년 기념행사’를 고하도 모충각에서 엄숙히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을 비롯해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 도·시의원, 해군 및 해경 관계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충무공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탄신제는 충무공의 영령을 맞이하는 강신 의식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목포 시립합창단과 해군 제3함대 군악대의 ‘충무공의 노래’ 합창이 울려 퍼지며 장엄한 분위기 속에 행사의 막을 내렸다.

또한 유달산 이순신 동상 앞에는 추모 화환이 배치되어 시민 누구나 충무공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 승리 후 106일간 고하도에 머물며 병력을 재정비하고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목포시는 매년 4월 28일 고하도 모충각에서 이충무공 탄신제를 개최하며 그 뜻을 기려왔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충무공 제480주년 탄신제를 맞아 충무공의 위대한 국난극복 정신과 민족 수호의 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계승하고 선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재욱 기자

강진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

강진원 군수, 팀장급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로 공감 소통

강진군이 지난 22일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톡톡, 공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며 조직문화 혁신의 새 장을 열었다. 이 자리는 팀장급 공무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와 격의 없이 대화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청렴 대화의 시간’을 통해 그간 말하기 어려웠던 조직 내 고민부터 일·가정 양립, 상하 간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충을 진솔하게 공유했고, 군수는 이에 공감하며 응답했다.

한 팀장은 “소극행정이나 수직적 분위기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고, 군수는 “팀장급 간부가 조직 내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의견이 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회식 문화와 퇴근 후 업무 지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소진된다”는 지적에 대해 군수는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행정력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강진원 군수는 “청렴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해남공룡대축제서 어린이날 즐겨요”

내달 3~5일 “공룡의 세계로 신나는 여행”

가족들과 함께하는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해남군은 황산면 공룡박물관에서 오는 5월 3~5일 제3회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린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룡 시간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공룡의 세계를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또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축제로 구성했다.

우선 어린이들이 공룡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며,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존을 조성했다.

참가자들은 거대한 공룡의 세계를 실감하는 한편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화석을 발굴하거나 공룡모형을 조립하는 등 창의 가득한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공룡발자국 탐험대가 되어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공룡의 생태에서 멸종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축제의 주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공룡버블 맨스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핑크퐁과 튼튼캱’의

댄스파티공연부터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 및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와 함께 노래하는 캐릭터싱어롱, 신나는 버블 댄스 타임을 비롯해 비눗방울쇼, 저글링쇼, 빅발룬쇼 등이 축제장을 달굴 예정이다.

특히 박물관 곳곳을 야간조명이 아름답게 물들인 가운데 5월 3일과 4일 저녁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룡가족 음악회와 아름다운 낙화놀이 공룡박물관을 수놓으며 공룡세계에서의 특별한 밤을 만들 예정이다.

군은 축제기간 동안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요원이 상주해 각종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축제기간 입장료는 무료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본격 추진

총 470개소에 39억원 투입… 가구당 연 60만원 전기료 절감 기대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비를 포함한 총 39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70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설치하면 연간 약 60만 원(월 5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해향 미래성장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은 높여 군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1~2024년까지 4년간 9개 읍·면에 총 1,683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김상문 기자

완도군-광주 동구청,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

소속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협력



완도군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완도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동구청 소속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완도해양치유산업 홍보와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회의 등 장소 활용 협력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동구청 소속 직원 및 가족들은 최대 4명까지 해양치유센터 이용 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지난 18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소속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선후배 간 멘토링 교육·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저녁노을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5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04섬 미니 예술 정원’ 프로그램은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원예치료사와 함께 정원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나만의 작은 정원’과 섬의 자연을 동기화한 ‘미니 예술 정원’을 만들면서 미적 감각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몸으로 느끼는 예술 정원’ 프로그램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자연을 주제로 한 행위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저녁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을 거닐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저녁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에서 진행되며,新安군민을 우선으로 각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까지이다.

저녁노을미술관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정경욱 기자

